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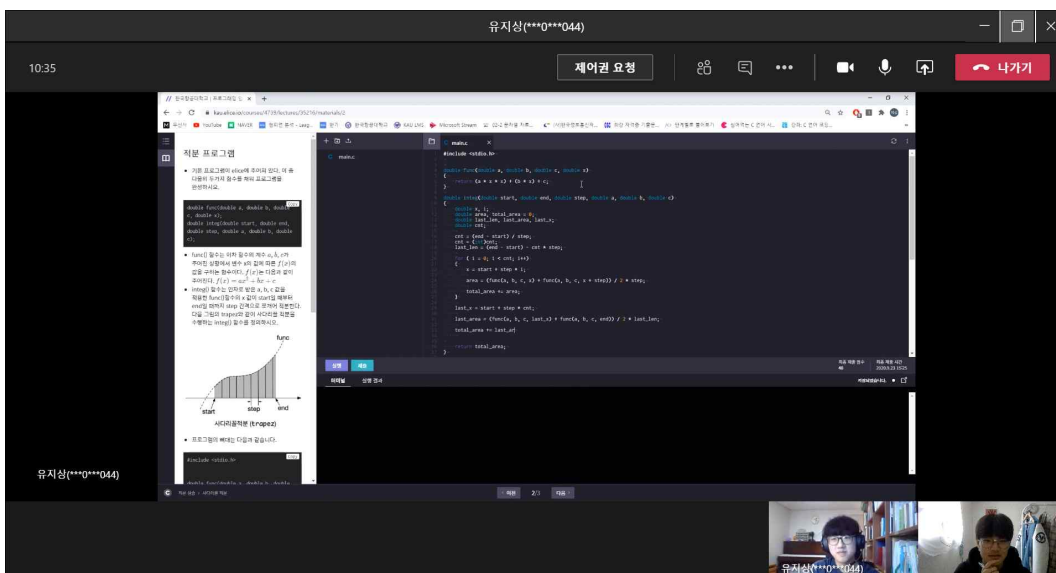
Sharing Ardor! 열정을 공유하자!

- 온라인 스터디 그룹 -

소프트웨어학과 20학번 이○○

○ 에세이 작성 동기

온라인 수업에 대한 나의 학습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사진 촬영을 허락해준 나의 동기 유○○ 군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수업이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지난 1학기였기에 이번 연도에 항공대학교에 새로 입학하게 된 나는 동기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 수업을 내 방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녹화된 강의를 봐야 했고 공부도 혼자 해야 했다. 1학기에 들은 과목 중 ‘영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는데 과목 특성상 실시간 소통이 중요한 만큼 매 수업 화상통화를 해야 했고, 실제로 만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속한 팀의 팀원들과 조금은 친해질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온라인 스터디’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났다. 동기들과 온라인으로라도 수업을 같이 듣는다면, 학업에 대한 열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정보를 공유하거나 모르는 것을 서로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점 등 오프라인에서 동기들과 수업을 들을 때의 이점들이 생기는 것이다. 카페와 스터디카페 등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의 제한이 생겨남에 따라 집에서만 있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슷한 뜻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었다. 학업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을 자유롭게 얘기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성, 열정의 공유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우리는 불안함과 나태함 없이 즐겁게 공부를 하였다.



○ 학습법 등 Tip 세부 내용

몇 가지 팁을 공유해보자면, 처음에는 카메라를 켜고 화면에 자신의 얼굴을 띄운 채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 어색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어색함은 정말 처음에만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규칙 몇 가지를 정해놓고 온라인 스터디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정해진 시간에 캡을 켜되 마스크나 모자를 쓰는 것을 허용했고, 매주 일요일 저녁이 되면 이번 주 온라인 스터디 활동은 어떤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인 활동 시간을 정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하루 불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활동 시간을 정하는 일요일 저녁 시간에 말하는 것으로 약속했다. 온라인 스터디 활동을 할 때 각자 이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열정 품은 타이머’ 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타이머가 작동하게 되는데 타이머 화면을 나가게 되면, 즉 휴대전화로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 타이머가 멈추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온라인 수업 활동 시간 동안 각자 타이머를 작동시켜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는 우리가 활동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 팁은 활동 시간이 끝나고 짧은 길든 꼭 수업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질문이 생긴다면 서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질문 시간이 될 수도, 질문이 없다면 빠르게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시간을 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혼자 공부하게 된다면 질문이 있더라도 혹은 복습이 필요하더라도 귀찮아서 미루기 쉬운데, 스터디 활동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책임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미루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 짧게라도 가진 피드백 시간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학업에 대해 더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궁금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학습방법을 통한 능력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혹자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이면 충분하지 않은 것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내 생각은 다르다. 물론 공부나 대학 생활에 대한 질문을 멘토 선배님에게 따로 여쭙볼 수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전공이 아닌 교양 과목이라면 멘토 선배님도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할 수 있고, 매번 물어볼 만큼 관계가 아주 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하여 멘토·멘티 활동에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온라인으로 친해지는 경우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온라인 활동을 최대한 이용해보자는 뜻에서 온라인 스터디 활동을 해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스터디 활동의 다른 방법들과 가장 큰 차별점은 대학 생활의 근본적인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사람들과의 만남’, ‘유익함보단 즐거움’이다. 물론 온라인 스터디 활동은 매우 유익하다. 실제로 학업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학업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을 규칙적으로 고정해준다는 점, 정보를 얻게 된다는 점, 온종일 집에 있지만 게을러지지 않게 된다는 점 등 나에게 유익했던 점은 대단히 많았다.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오프라인 만남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학교 1학년 생활이 학업 공부에서만 끝날 뻔한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 추천 이유 및 소감 등

내 주변에는 나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1학년이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아야 하는 시기라며 현 코로나 상황이 어서 빨리 종식되길 기원한다고 한다. 나도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며 다양한 추억들을 쌓아보고 싶다. 지금처럼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길어진다면 그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즐거움을 찾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온라인 스터디 활동은 나처럼 1학년인 새내기들에게 더욱더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다. 집에만 있다 보니 게을러지고, 생활이 불규칙해지며 나태하게만 살았던 내가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면서 학업에 대한 열정이 다시 생기고,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스터디 활동은 1학년뿐만 아니라 재학생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온라인 수업 수강 방법이다. 또한, 내가 직접 해본 활동은 아니지만, 실시간 화상통화를 이용한 활동이 온라인 스터디 그룹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닌 동아리 활동이나 취미 활동, 토익 준비반, 자격증 준비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